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 후 첫 시민간담회·전당투어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7월호

‘균일하지 않은 음향’...반사판 각도 보완 필요

장기 프로젝트·주차 문제 지적
우수 프로그램·성과 등 홍보 아쉬움
이색 기획 ‘도네이션 기부제’ 알려야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재개관한 광주예술의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3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광주예술의전당이 ‘음향이 균일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음향반사판의 배치 및 공연 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문화예술시민콘텐츠 공모전이나 방문 관객 선호도를 토대로 한 공연 편성 등 시민과 밀착된 프로그램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 대극장에서 시민간담회 및 전당투어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유료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운영팀 예술의전당장을 비롯해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전당 관계자, 시민기자단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료회원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담긴 제안을 했다.

무엇보다 음향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리모델링 전부터 공연을 자주 다녔다는 한 유료회원은 “재개관 이후 교향악단, 필하모니 등 공연을 관람했으나 사운드가 앞으로 퍼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면 중앙부는 그러나 괜찮았지만 전방·측방 좌석 등 모든 자리에 앉았을 결과 ‘음향의 공존’이 덜 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운영팀 전담장은 “음향에는 객관적·주관적 면이 있으며 시간이 흘러야 음향이 더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다. 빈집포니 공연은 피아니시모까지 세밀하게 들렸기에 좋았다고 생각하나, 좌석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도 있으니 음향을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승수 공연지원과장은 “클래시 전용 홀 만큼의 수준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첫 공연 이후 음향반사판의 배치와 각도, 악단의 배치까지 다양한 요소를 안정시키려 보완 중이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플로어링(무대바닥)의 틈을 촘촘히 해 잡음을 막았으며, 객석 어느 곳에서나 균등한 음압을 얻으려 라인어레이(3포인트) 설정, 서브우퍼도 신규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전당 일대가 종외벨트 지역으로 설정돼 문화예술 기관들이 무임 예정이 다. 주차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텐데 주차장 증설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시민도 “광주비엔날레, 박물관, 예술의전당 주차장은 항상 주차장이 꽉 차 있다. 관람과 무관한 시민들이 주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물었다.

김요성 시 문화체육실장은 “주차시간이 30분 이상 경과하면 유료화하거나 주차종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은 ‘규제 이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추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료회원인 변씨는 “리모델링 후 극장이 좋아졌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향후 대규모 수준 높은 극장 건립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유료회원 서씨도 “문화예술 시민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우수관람자나 최다관람객 혜택 제공, 방문 관객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공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버 이전 중 발생했던 티켓링크 예매 오류와 소극장 공연장에서 스크린을 통한 영상시청 시 불편 개선, 이벤트성 사인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프로그램 홍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유료회원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서울에서도 호평을 받고 올해의 앨범에도 선정됐으며 발레단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 이같은 전당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당이 홍보한 ‘도네이션 기부제(객석에 명패 부착)’가 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교해 예향도시 광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이라 생각하는데, 이색적인 기획임에도 이에 걸맞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당은 이번 재개관에 앞서 리모델링을 통해 음향 시설은 물론 무대 바닥재를 전면 교체했다. 객석은 의자 크기와 객석 간 간격을 넓혀 쾌적한 관람환경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운영팀 전담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준 높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더 좋은 전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재개관한 예술의 전당 내부.

연남



뮤지션·청중 함께 ‘지붕없는 무대’ 버스킹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 첫 행선지 화순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7월호(통권 333호)가 나왔다. 이번 호의 특징은 ‘지붕 없는 무대’ 버스킹 이야기다.

매주 주말이면 광주 5·18민주광장과 ACC 하늘마당,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 등지에서 거리공연이 이뤄지고, ‘여수남만 버스킹’과 ‘목포항구 버스킹’ 등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시 동구청 주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경연 축제인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다. 뮤지션과 청중이 공감하는 ‘지붕없는 무대’ 버스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향 초대석’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물리학자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다. 양자역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에 힘쓰고 있다. 과학을 널리 알릴수록 한국사회에 ‘과학적 사고방식’이 자리잡을 것으로 믿는다. 최근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을 물리학자의 눈으로 정리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펴낸 김 교수를 만났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휴가시즌, ‘해외문화기행’은 예술의 도시 파리로 떠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유럽 등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볼거리가 많은 프랑스 파리는 관광객들의 로망이다. 예술, 공원, 음식, 패션 등 수많은 명소와 스토리

를 품고 있는 예술의 도시 파리를 둘러본다.

7월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 첫 행선지는 ‘머물고 싶은 힐링여행지’ 화순이다. 화순군은 적벽, 만연산 오감길, 개천사 비자나무숲 등 색다른 생태여행지를 품고 있다. 고인돌 유적지와 백산 하늘다리, 연동리 숲정이, 양떼목장, 운주사도 여행자를 설레게 한다. 전통 수제두부와 목장에서 만드는 수제요거트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우리 선조들의 풍류문화의 결실인 정자와 누정을 찾아떠나는 ‘호남의 누정’ 시리즈도 새롭게 시작된다. 언제부터가 옛것은, 지나간 것은, 진부한 것으로 규정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없이는 내일의 우리 후손들도 자리할 수 없듯이 오늘의 시간을 이루는 선조들의 지식과 지혜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의 누정’을 알아가는 건 후손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새관공여지도’ 두 번째 이야기 ‘헬니스 관광지와 사찰에서 힐링’,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목포의 9매(미) 이야기, ‘문화를 품은 건축물’ 빛을 담은 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사진으로 만나는 ‘2023 호남예술제’, 시편 읽고 성실로 더 단단해진 광주FC의 버티록 두현석 선수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미술품이 재판매매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 불리는 재판매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매 때 해당 작가가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추급권’은 미술품이 복제가 쉬운 음반이나 도서, 영상물과 달리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추급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작품이 고가로 거래되지만 창작자나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번 ‘미술진흥법’에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및 자문업, 대외·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술 서비스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여름 밤의 영화음악 콘서트’

TBN광주교통방송·퓨전앙상블 불랑, 4일 북구 문화센터

클래식 라이브공연에 영상미를 곁들인 무대가 열린다. TBN광주교통방송과 퓨전앙상블 불랑이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 문화센터에서 ‘한여름 밤의 영화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범죄영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대부’의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리처드 커티스의 역작 ‘어바웃 타인’의 ‘세상은’ 등 명작 OST들을 라이브로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세상은’에서 ‘세상은 한순간도 멈춘 적 없다’라는 클라이막스는 관객들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나라’ (한태수), ‘격정말야요 그대’ (전인권) 등을 편곡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마련

했다. 무대에는 미국과 이태리 등에서 공부한 권효진(Sop.), 이탈리아 Arena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김진우(Ten.),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재경(Bar.) 등이 오를 예정이다.

광주 DJ협회 회장으로 30년 이상 음악활동을 한 김정아도 함께해 풍부함을 더한다. MBC ‘별이 빛나는 밤에’, TBN교통방송 ‘김정아의 추억이 있는 곳에’ 등



퓨전앙상블 불랑의 모습. <퓨전앙상블 불랑 제공>

에서 DJ로 활약해 왔다.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며 공연수익금 전액을 교통사고 유자녀와 소외계층에게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최류빈 기자 rubi@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